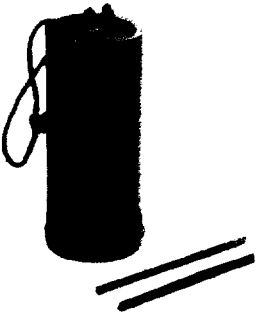
차례

규장각 교양총서를 발간하며 006

머리글 | 조선을 살 만한 곳으로 윤기낸 사람들 009



1장 군사부일체 사회의 버팀목, 그러나 불우한 삶 018
조선조 교사와 훈장의 삶 정순우 ·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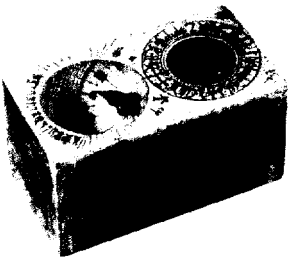
2장 왕의 허락을 얻어 하늘을 관찰하다 048
조선의 천문역산가 문중양 ·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

3장 의관으로 출세하기 위한 험난한 길 076
명의와 속의 [illegible]의 경계에 선 조선의 의원들 신동원 ·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

4장 팔도를 뒤흔든 대중 스타, 달문의 삶 108
광막한 천지를 떠돌던 조선의 광대 사진실 · 중앙대 음악극과 교수

5장 배척과 존중의 위태로운 경계에 서다 130
조선의 승려, 허응당 보우 남동신 ·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

6장 음악은 직업, 혹은 인격 수양의 방편 156
조선의 음악가들 송지원 ·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



7장 조선시대 궁녀의 계보학 _190
궁궐 살림을 책임진 여성 일꾼들 홍순민 ·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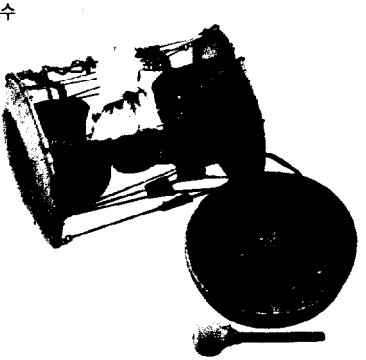
8장 목장木匠의 종류만 스물둘 _230
조선의 집 짓는 사람들 김왕직 ·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

9장 붓끝에서 탄생한 무명의 예술혼 _268
조선의 화원 황정연 ·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

10장 작은 기예를 부리던 자에서 문화 선봉장이 되기까지 _310
조선의 역관은 어떻게 탄생했나 백옥경 ·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

11장 조선시대엔 왜 서점이 없었을까 _340
책 파는 사람, 책 읽어주는 사람 이민희 · 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

12장 100년 전 서울의 일수장부를 엿보다 _358
조선의 금융업자 조영준 ·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

참고문헌 및 더 읽어볼 책들 _377

지은이 소개 _383